

시온 주보

제2417호 2022년 10월 16일(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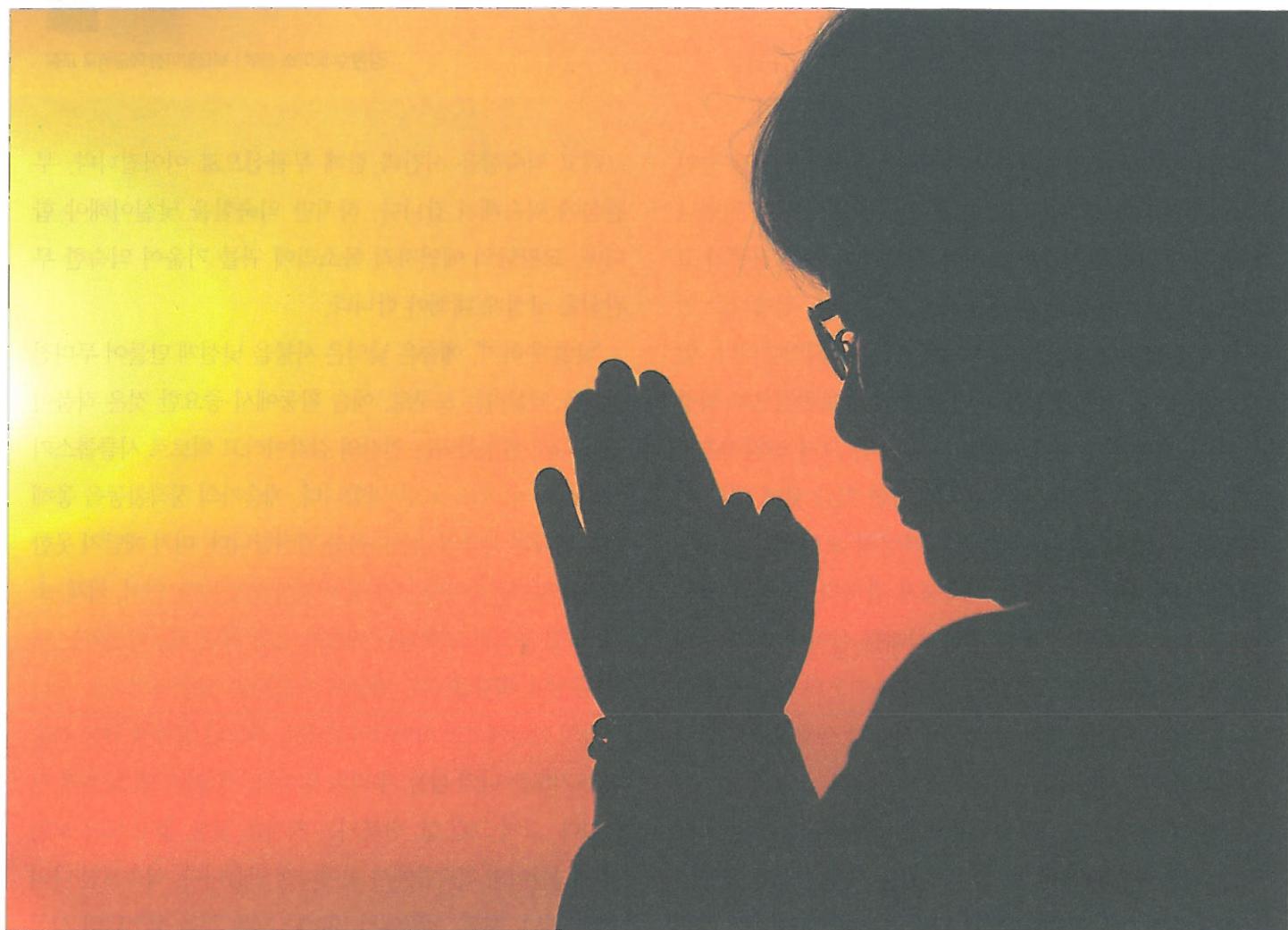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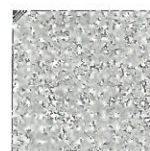
연중 제29주일

발행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17(16), 6, 8 참조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주님,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제1독서 | 탈출 17, 8-13

화답송 | 시편 121(120), 1-2, 3-4, 5-6, 7-8 (◎ 2 참조)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리오? 나의 구원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 그분은 너의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리라.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

○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너의 오른쪽에 계

신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

○ 주님은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신다. 그분은 너의 목숨 지켜 주신다. 나가나 들거나 주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

제2독서 | 2티모 3, 14-4, 2

복음환호송 | 히브 4, 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복음 | 루카 18, 1-8

영성체송 | 시편 33(32), 18-19 참조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김한수 토마스 신부 | 화요일아침 예술학교 교장

하느님과 낮선 만남

“우리의 비극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축적이 한 나라가 겪는 전쟁의 고통과 슬픔을 그저 짧은 외신 뉴스로 만듭니다.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불편할 뿐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상을 뒤흔드는 고통과 슬픔이 개인을 넘어 보편적으로 확장되고, 그 보편성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저 안타까움으로만 표현되고,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인간 삶에 대한 어설픈 관조적 태도로 이어집니다. 타인의 보편적인 고통은 그렇게 나에게서 멀어지고 익숙해져 갑니다. 공정과 평등이라는 원리가 앞세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개인은 타인의 고통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이웃의 아픔에 점점 무뎌집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예의범절로 이해되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무관심의 세계화’. 로마의 주교로 선출되고부터 끊임없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예언자적 외침입니다. 집과 나라를 떠나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무심함, 기후 위기로 위협당하는 생태 환경에 대한 외면, 능력에 따른 정당한 차별로 받아들여지는 경제적 불평등이 모두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경쟁과 차별을 사회적 삶의 전제로 받아들이고 강제되는 현실에서 교황님의 호소는 나날이 작아집니다. 발언의 기회마다 건네는 말씀으로 익숙하게만 들립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시간과 함께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무관심에 익숙해져 갑니다. 하지만 익숙함을 낯설어해야 합니다. 교황님의 예언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익숙한 무관심을 낯설게 해야 합니다.

‘낯설게 하기’. 예술은 낯익은 사물을 낯설게 만들어 무뎌진 감각을 되살리는 도구로, 예술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이 아닌 다시 활성화되는 인간의 감각이라고 빅토르 시클롭스키(Viktor Borisovich Shklovskii)는 말합니다.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통해 스쳐 지나친 사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사실상 비일상적인 문장, 언어, 색채, 소리, 몸짓 등으로 표현되는 예술을 접할 때면 일상에서와는 다른 감성이 채워집니다. 예술로 비롯되는 ‘낯설어지기’는 하느님과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는 나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세상살이를 낯설게 이끍니다. 그저 그런 삶,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들고 도는 보편적 세상살이의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익숙해진 나의 시각, 관념, 체험, 상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낯설게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익숙한 나의 시선이 아닌 낯선 하느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낯설어짐으로써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와 만남을 새롭게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낯선 시선을 배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뜻으로 예수님은 오늘 쉬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루카 18,1) ... 객객은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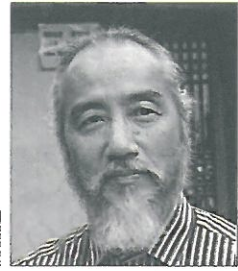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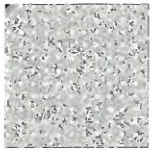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루카 18,1)

새 아침,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사무엘 예언자의 어머니 한나, 열두 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성녀 모니카의 기도와 믿음은 우리의 표상이 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는 결국 하느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주님께 아뢰시다. 낙심하지 말고,



홍덕희 아녜스 | 가톨릭사진가회



김세원 안셀모 | 울산대 미술학부 교수

힐링(Healing)

요즘 우리 생활에서 힐링(healing)이란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힐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인데, TV를 켜면 그 많은 채널을 일명 먹방 프로그램이 압도합니다. 먹는 것이야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지만 이렇게도 먹는 것에 열광한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에서 힐링을 찾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마다 힐링을 즐기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번거로운 도심을 떠나 시골길을 자동차로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절에 따라 풍경이 바뀌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초록의 들판을 달릴 때면 더욱 즐겁고 신납니다. 더욱이 시골길은 교통 혼잡에서 벗어나 언제나 한적하고 넉넉한 길을 즐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소(公所)를 찾아가는 길이 저에게는 힐링이 되는데 대부분의 공소가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를 '신앙의 못자리'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소는 신부님이 상주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의 초기 신앙 생활이 바로 이 공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박해의 칼날이 시퍼렇던 시절에도 이곳에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서양의 카타콤(초대 교회 시대의 지하 공동묘지)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공소에서 숨죽여 기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1,900여 곳의 공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점점 낡아가고 있습니다. 허름해진 공소들은 새로 지어지기도 하지만, 무너져 내리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관리가 잘되는 곳도 있지만 곳곳에 거미줄로 장식되어 방치된 곳도 많습니다.

한옥 공소에 특히 관심이 있어 가끔 찾아가 보면 지붕의 기왓장은 깨지고, 제대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채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고, 고상은 떨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쥐똥이 범벅된 바닥에서 풀이 자라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어떻게 하느님의 집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지순례의 활성화를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공소에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공소는 조용합니다. 번거롭지 않습니다. 쾌적합니다. 단출해서 기도하기에 최적입니다. 주변에 음식점도 없고 커피숍도 없으며 화장실은 불편합니다만, 이왕 나선 순례길에 성지에서 비켜나 있는 공소들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의 발걸음이 닿아야 귀중한 신앙 유산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신앙의 뿌리가 된 공소, 신앙 선조들의 열정이 담겨 있는 공소, 이러한 공소에서 두 손을 모으면 우리 몸에 힐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컷 묵상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선택된 이들이
부끄럼을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류상에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34

구약과 신약의 연결 - 엘리사벳과 마리아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마리아는 예수님 잉태 후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았고, 본인 경험에 근거해 하느님의 개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분이라는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루카 1,42 참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중에 태중의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요한의 사명은 하느님 백성이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선구자 역할입니다.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 선구자와 메시아의 만남,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엘리사벳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옛 하느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엘리사벳과 요한을 통해 옛 하느님 백성은 새 하느님 백성으로 연결됩니다. 마리아는 새 하느님 백성의 시작을 알립니다. 마리아의 잉태와 출산은 새로운 계약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신앙이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리라는 천사의 말에 몹시 놀랐고, 두려워하였으며,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루카 1,29-30 참조) 그래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였”(루카 1,29)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시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예!”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이사 7,14)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주어진 구원 약속이 신약의 마리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언이 실현되고,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은총

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는 것이고, 동시에 마리아의 미래와 믿는 이들의 미래가 어떠할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Immanu) ‘하느님’(E)이십니다. 인간과 함께하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은 구약에서도 하느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판관 6,12; 1역대 22,11,16 참조) 마리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리라고 확약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이는 마리아의 응답이었고, 동시에 믿는 이들과 교회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님 탄생 예고 중에 이루어진 마리아의 “예!”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하와와 신약의 마리아, 죄와 구원, 불순종과 순종, 죄와 자유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인류 전체의 역사 안에서 마리아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교회헌장』 56항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한 처녀를 선택하셔서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 여종을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과 은총에 마리아처럼 신앙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지만, 그분의 구원 계획에 인간이 순응하고 협력한다면 우리는 은총을 체험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Homo proponit, Deus disponit!(진인사 대천명)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태 영성을 추구하며 행동에 나섭시다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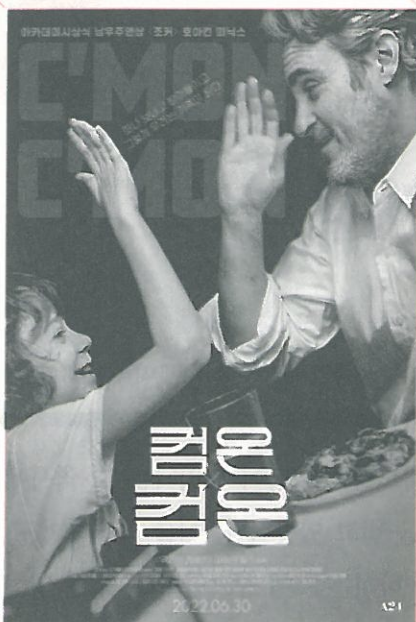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례를 거행하는 미사 중에 하느님을 만납니다. 일상의 기도 중에도 하느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상기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애씁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을 반영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십니다. 회칙은 하느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그리스도교의 이 믿음을 확인합니다. 하느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공동의 집 지구의 모든 피조물의 삶과 우리 신앙인의 영성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은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모든 피조물, 그리고 연관된 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사랑하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과 떨어져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떨어져 사는 금욕주의자의 모습을 하지도 않으시고 삶의 즐거운 면을 적대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육신과 물질과 세상 현실을 경멸하는 사상들과는 매우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찬미받으소서」, 98항)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생태계 파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피조물들 안에 머무시며, 그들의 완성을 위해 역사하신다고 증

언합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태 영성의 삶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은 전례와 교육, 피정, 양성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바치는 우리 신앙인의 기도 지향에도 창조 질서 보전이라는 주제가 꼭 포함되어야 하겠습니까. 생태 영성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과가 다른 피조물과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우리의 회개(전환)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이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개인적인 회개(전환)만으로는 공동의 집을 제대로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돌봄에 나서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특히 정치인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피조물과 사회적 약자들을 제대로 돌보는 정치를 하도록 격려하고 압박하는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신앙인의 삶에서 결코 부차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동시에 듣고 필요한 행동에 나서는 그리스도교 영성을 우리는 생태 영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현실을 바꾸는 영성을 추구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또한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선하심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더 자주 의식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으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영화칼럼

영화 '컴온 컴온'

마음의 귀로 들으세요!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아이들에게
삶과 가족, 미
래에 대해 물어
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화가 나고,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있다면 “나만 옳다.”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겠지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세상을 잘 모르고, 느낌이나 생각도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착각입니다. <컴온 컴온>의 라디오 저널리스트 조니(호아킨 피닉스 분)는 미국 곳곳의 아이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이를 확인합니다.

그가 만난 아이들은 어른 못지않게 삶과 미래를 다양한 감수성으로 상상하고 고민합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아이도 있고,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두렵다는 아이도 있고, 오염된 지구를 걱정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동생의 부탁으로 조니가 잠시 맡은 아홉 살의 조카 제시(우디 노번 분)처럼 누구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만 하던 조니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제시의 하루하루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에 당연합니다. 조니는 “왜, 엄마와는 그동안 소식을 끊었나요?” 같은 당혹스러운 제시의 질문들에 답을 피합니다. 제시는 “내 마음은 내 속에 있는데 삼촌이 어떻게 알아요?”라면서 이따금 고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연의 소리에 열중합니다.

마음에 귀가 있어야 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

서도 “우리가 친교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해야 하는 첫 봉사는 경청이며,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애덕의 첫 번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와 어른 사이라고, 가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시가 “서로 사랑해도 엄마는 저의 모든 걸 알 수 없고, 반대도 그래요.”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의 스스럼없는 감정 표현을 막고, 말하기를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둘의 마음의 문도 결국은 조니가 먼저 ‘어찌고 저찌고’의 변명을 대는 대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제시의 마음에 귀 기울여 아이의 감정에 의미를 찾아주면서 조금씩 열립니다. 이를 위해 <컴온 컴온>은 ‘듣고(경청) 말하고(표현)’를 끊어질 듯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게 반복합니다.

이렇게 슬픔과 위로와 치유를 주고받으면서 조니는 제시에게서 어른보다 깊고 넓고 날카롭고, 어른들은 잊고 있던 ‘삶과 세상’의 지혜까지 인터뷰의 대답으로 듣게 됩니다. **“미래에는 예상했던 일들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보다는 생각 못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해요! 해요!(Come on, Come on)”**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는 것이예요. 당신 자신을 편안하게 발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제시의 말처럼 아이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어른들은 좁은 공간에서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내 감정을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생각 못한 일이라도 해보고, 그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로 평화와 안식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컴온 컴온>의 아홉 살짜리 꼬마가 “사람은 모두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낮설지 않고 어디선가 본 듯한 친근한 모습

우리 교회의 많은 미술가들이 하느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꾸며줍니다. 그들의 예술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구에는 가톨릭미술가회가 있으며 이곳에 몸담고 활동하는 회원이 900여 명에 이릅니다. 세계 교회에서 이처럼 많은 화가들이 역동적인 활동을 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1970년에 창립된 서울가톨릭미술가회의 역사도 어느새 5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미술가회가 큰 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 초기에 척박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린 사람들의 공이 있었습니다. 교회 미술의 초석을 놓은 장발(루도비코, 1901-2001) 선생, 미술가회를 만들고 이끈 이순석(바오로, 1905-1986) 회장, 김세중(프란치스코, 1928-1986) 회장, 이남규(루카, 1931-1993) 회장의 공헌이 컸습니다. 이분들의 뒤를 이어서 가톨릭미술가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조각가 최종태(요셉, 1932-) 회장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단에서 가르치고 작업실에서 작품을 제작하며 우리나라 조각과 교회 미술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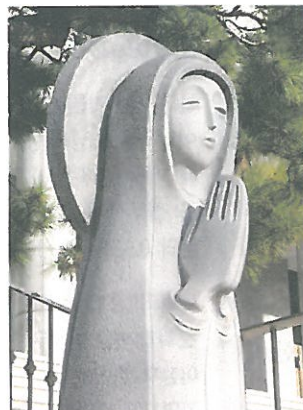
최종태 조각가는 유럽 성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기에 교회 미술의 토착화를 위해 활동하면서 우리의 얼굴과 모습을 지닌 성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예수상이나 성모상, 십자가의 길 14처 등은 우리 눈에 낮설지 않고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친근한 모습입니다.



예수상 | 최종태, 1982년, 명동대성당 외부, 교구 역사관 앞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 | 서울대학교 성미술 담당



성모상 | 최종태, 1996년, 혜화동성당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심성과 정서가 작품에 담겨 메마른 삶과 마음을 적셔줍니다.

작가는 사실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내면적인 모습을 단순하면서도 명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단아한 소녀상이나 성모상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손과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2000년, 그가 서울 길상사에 만든 관세음보살상 앞에서도 경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도 창작에 몰두하는 작가는 “아흔을 맞은 지금에서야 작품이 자유롭게 만들어진다.”며 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명동대성당에도 최종태 조각가의 <예수상>, <십자가의 길>, <김수환 추기경상>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대치2동성당, 돈암동성당, 명일동성당, 목동성당, 목5동성당, 상도동성당, 세종로성당, 신도림동성당, 압구정1동성당, 연희동성당, 오금동성당, 위례성모승천성당, 잠실성당, 절두산 순교성지, 정릉4동성당, 중앙동성당, 한강성당, 혜화동성당(가나다순)에서도 작가의 다양한 교회 미술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관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팔리움 수여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2년 6월 29일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 팔리움을 수여하셨습니다. 이에 주교님들과 관구 내 교구민들이 함께하는 팔리움 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때, 곳: 11월 7일(월) 오후 6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정월령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내용 참조 /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화상수업'

주제: 내가 모르는 나를 만나다
때: 10월26일~2023년 1월25일 매주(수) 20시~21시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음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40차 미사 10월1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성천 본당, 영유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복음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한국교회사연구소 2022년 2차 성지순례

곳: 한덕골, 손골, 수리산성지
때: 10월22일(토) 오전 8시
출발: 평화방송 건너편 가톨릭회관후문
회비: 5만원(중식, 순례책자 포함) / 입금 선착순 마감, 입금 후 성함, 연락처 문자로 보내주세요
입금계좌: 카카오�뱅크 3333-20-9508527
문의: 010-3272-1011 최정수, 010-3874-3506 소해룡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동절기 노숙인 야간숙회 봉사자 모집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실시하는 동절기 노숙인 야간숙회에 참여할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노숙인을 위한 나눔 및 정서지원에 참여할 봉사자로 해당기간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봉사자님 / 문의: 02)727-2240 사회복지팀 이춘식
때: 10월17일~2023년 2월27일(총 18회) 중 매주(월) 19시30분~22시

2022 서울역사유산재현 및 문화한미당 '시월에찬(詩月愛讚)'

대상: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사전 신청자에 한함(무료공연) / 내용: 사랑과 명상 특강, 시 토크쇼(정호승과 안치환), 문화한미당(강신옥, 에스투스 등)
때: 10월29일(토) 10시~17시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홀
문의(신청): 02)727-2078 서울시교우협의회,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 참가신청 사이트(<https://naver.me/GCu4FaE1>)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9년 10월 21일 한기근 바오로 신부(71세)
- 1943년 10월 23일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80세)
- 1950년 10월 19일 전덕표 안드레아 신부(29세)
- 1986년 10월 18일 김진하 요한 신부(62세)
- 2001년 10월 19일 김윤상 베네딕토 신부(79세)
- 2011년 10월 19일 김자문 네레오 신부(63세)
- 2020년 10월 19일 김창만 안드레아 신부(88세)

10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0월1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 채플 /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월례미사

때, 곳: 10월17일(월) 10시30분, 광장동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시복시성 기원미사(179회)

이달의 하느님의 종 '이봉익 베드로'
때: 매달 셋째주(화) 10월18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문화와 복음' 이창우 초대전: 1전시실
이정자 개인전: 2전시실
가영시아 사진연구: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19일(수)~24일(월)

본당 수도자 연수

주제: 자살 예방 - 나는 소중한 존재, 내 이웃의 말 못 할 고통 /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때, 곳: 11월15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개별 신청
11월8일(화) 마감 / 회비 없음

용문청소년수련장 이용

3만평 숲 속 넓은 잔디 운동장, 잣나무 그늘, 메타세쿼이아 사잇길 / 문의: 031)774-3587
본당 야유회, 연수, 꾸리아 야외 행사, 피정 등 가능, 각 단체나 반원 등 소규모 인원의 당일 피정·숙박 피정
렉시오 디비나 피정: 10월28일~30일
향심기도 피정: 11월18일~20일, 12월9일~11일

'찬미받으소서' 연수

때: 11월11일(금)~13일(일) 2박3일
곳: 샬트르 성 바오로 피정의 집(시흥시 계수동)
대상: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수료생(선착순 30명)
회비: 15만원(1인 1실) 접수 마감 후 입금 계좌 공지
신청방법: <https://bit.ly/laudatosiretreat> 링크 이용
온라인 신청 / 연수내용: 회칙 '찬미받으소서' 심화 이해를 돕는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
문의: 02)727-2283, 2278(ecocatholic@daum.net) 환경사목위원회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3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천주교 관련 학문 전공),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기간: 10월14일~12월14일
접수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caf1@cbck.kr)
문의: 02)460-7533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대림·성탄 묵상곡을 위한 성음악 합창 심포지움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본당, 청년, 장년 등)
때: 주중 10월24일(월), 10월31일(월) 3시간~2회 · 주말 10월29일(토) 6시간~1회(주중, 주말 중 택1)
접수 및 등록: 10월4일(화)~17일(월)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참조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 /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성음악위원회)

2023학년도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화요일아침예술학교'는 고등학교 일반교육과정과 미술심화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입니다
모집인원: 미술계열 1학년, 여학생 13명
지원자격: 미술에 재능이 있는 어려운 환경의 중학교 졸업예정(검정고시합격)자
원서접수: 10월11일(화)~31일(월)
문의: 070-8891-3831 교무실
홈페이지: www.flowerdaymorning.com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영성심리카데미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예약): 02)727-2126(tp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제4지구(종로·성북) 성령기도회

미사·강의: 한창현 신부 / 문의: 010-3321-1863
 때, 곳: 매월 셋째주(금) 10월21일 13시~16시, 길음동성당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 문의: 010-9074-6527

강사: 이창진 신부 / 미사, 치유기도
 때, 곳: 10월17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평화의 모후 청년 쉼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 / 문의: 010-7197-1390

때: 10월26일(수) 19시30분 / 대상: 만 35세 이하 청년
 곳: 착한목자수녀회(주최, 전철 2·7호선 건대입구역)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 CLC)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11월4일(금)~6일(일) 2박3일
 곳: 성바오로 피정의 집(시흥시 계수리)
 10월27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월~금)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시간·미사

때, 곳: 매주(목) 23시20분~24시50분, 미리내성
 지 옛세마니 동산(우천시 103위 사성기념 성당)
 성시간 순서: ① 성심의 메시지, ② 양팔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③ 성시간 미사 / 문의: 031)674-1251
 지향: ① 세계평화, ② 교회일치, ③ 죄인회개, ④ 성직
 자·수도자 성화, ⑤ 낙태죄 배상, ⑥ 한반도 평화통일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피정	11월11일(금)~12일(토)
수도원 순례	12월6일~9일, 트라피스트 등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0월24일~26일, 11월18일~20일, 12월3일 ~5일, 12월9일~11일, 12월16일~18일
연말 연시 피정	12월30일~2023년 1월2일(눈꽃산행)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피정

곳: 명상의 집(우이동) / 문의: 02)990-1004

대침묵 피정	10월21일~23일, 11월25일~27일(2박3일)
집단 심리상담 피정	1차 10월17일, 2차 10월24일
개인 피정·위탁 피정	별도 문의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8차	11월11일(금)~19일(토)	문의:
제109차	12월2일(금)~10일(토)	061)373-3001,
제110차	12월30일(금)~2023년 1월7일(토)	010-3540-9001

목주기도 묵상 피정(마리아학교)

강사: 양승국 신부 / 문의: 010-9620-4820
 때, 곳: 10월17일(월) 9시30분~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17지구(강서) 성령기도회 초대 / 문의: 010-5513-9473

내용: 찬양, 묵주기도, 강의, 미사, 인수/강사 양창우 신부
 때, 곳: 10월25일(화) 13시~17시, 우장산성당

돌아보며 깨닫기

혼인 성소 찾기 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유튜브: 돌깨TV
 영상 심리상담 / 문의(예약): 010-3173-2665

프라도수녀회 젊은이 만남

때: 11월6일 14시~18시 / 대상: 40세 미만 남녀
 곳: 프라도수녀회 본원(구로구 고척로 52길 68-6)
 미사 있음 / 문의: 010-2205-1856, 010-2976-1856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때: 10월24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
 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한티가는길 2박3일 도보순례(한티피정의집)

때: 10월21일(금) 9시~23일(일) 14시
 코스: 45km-가실성당, 신나무골성지, 한티순교성지
 숙박: 한티피정의집(2박7식) / 문의: 054)975-5151

효산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0월21일~24일·11월4일~7일·11월18일
 ~21일·12월2일~5일·12월16일~19일, 도미니코
 수도회 / 문의: 010-9363-7784 신글라라

대구·부산·마산교구 순례·왜관 수도원 전례·탐방

때, 곳: 11월11일~15일(대구~울릉도 포함)·12
 월3일~5일(대구 17곳)·12월16일~19일(부산·마
 산)·2023년 2월18일~20일(대구 17곳)·3월1일~5
 일(대구~울릉도 포함) / 출발: 서울 명동(대행버스)
 문의: 010-3807-1784 왜관 수도원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10월24일~26일·10월29일~31일·11월1일~3일
 ·11월15일~17일·11월21일~23일·11월26일~28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목주 전문반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d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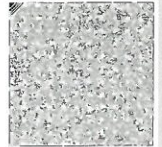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미나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10월25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단기 1년 또는 장기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
 co.kr) /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 학교법인



가톨릭노동장년회 풍물모임 '풍울림'

생활 스트레스, 풍물로 날리자
 때, 곳: 매주(수) 19시, 노동사목회관
 회비: 5만원(수시 모집) / 문의(접수): 010-3239-9308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오르프'와 함께하는 쉼, 움직임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곳: 11월8일~29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
 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시다' 성체조배 영성학교

강사: 홍성남, 배경민, 김태홍, 고준석, 임승철 신부
 때: 10월26일~11월23일 매주(수) 14시~16시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4만원
 문의: 02)773-3030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2023년 노비바스음악중·고등학교 신입생(고등) 모집

원서접수: 10월17일(월)~21일(금) / 인원: 11명(성
 직자추천전형, 학교장추천전형 각 1명 포함)
 대상: 저소득층·소외계층 여학생 중 음악을 전공
 하고자 하며 기숙사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학생
 세부 전형 안내 및 원서 게시: 홈페이지(novitas.kr)
 문의: 031)584-1130 교무실, 070-4129-707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영성특강 '참 신앙인의 길'

때, 곳: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 사무실

10월21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최정훈 신부
10월28일	위한 두 가지 계명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3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1차 전형 원서접수: 10월17일(월)~27일(목)·전형일
 11월12일(토)·2차 전형 원서접수: 11월14일(월)~24
 일(목)·전형일 12월10일(토) / 문의: 02)705-8668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 영성·철학상담: 철학
 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 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 석·박사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제21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3주)	미국 LA 영어캠프(3인 1실 기숙사),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년,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등 명문대 재학생 간담회
몰타 (3주)	국내 유일 몰타 영어캠프(2인 1실 대학기숙사)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유럽 3개국 투어, 파 리 디즈니랜드, 로마 바티칸, 마드리드
사이판 (4주)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2·3인 1실 리조트) 명문 대 선생님 수습수업, 다양한 액티비티와 현지 투어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3년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12월5일(월) 14시
 원서접수: 11월7일(월)~18일(금)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영성독서지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2)439-3811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 내용: 일반독서·인문독서·영성독서(각 과정 6주),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때: 10월17일부터 매주(월) 19시30분~21시30분
 곳: 명동대성당 교육관 304호 / 회비: 각 단계별 10만원
 주최: 가톨릭독서아카데미(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모집

카리타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 가톨릭사회사목국 소속
 대상: 55세 미만 남녀 교우 / 문의: 010-3727-2214
 연습: 매주(월) 19시, 유락사회복지관(신당동) 9층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10월20일(목) 12시, 가톨릭회관 3층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10월25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흥제동성당 주일 밤미사 시작 안내

미사: (일) 21시 / 고해성사: 8시30분부터
 곳: 전철 3호선 흥제역 1번 출구 국민은행 건물 보고 우회전 / 문의: 02)396-7771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넷째주(일) 10월23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생명이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곳: 도미니코 수도회(주최, 강북구 수유동)

성체미사	매주(수) 19시30분	문의:
성토마스 성체신심회	넷째주(토) 10시	010-5818-8431

인문

제9회 가톨릭영화제(가톨릭영화인협회)

때, 곳: 10월27일(목)~30일(일), 대한극장(서울 충무로)
 무료 현장 발권(자율기부제) / 문의: 0507-1424-0712(caff.kr)

개인 피정(상주기도의집) / 문의: 010-9092-3930
 곳: 경북 상주시 만산4길51번지(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수녀회-주최) / 침묵과 고요 가운데 기도과림이 필요하신 분(사제·수도자·신자)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회수녀회)

2022년 서울대교구 전례꽃이 연구회 제14회 묵상 전시회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주제: 전호엽 신부
 개막미사: 10월20일(목) 오전 10시30분
 파견미사: 10월21일(금) 오후 4시
 문의: 010-9590-4560 이월주 회장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전문	부부 및 가족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 심리상담
아동청소년·성인 진로적성검사	다중지능검사, 자기조절학습검사, 인성검사, 대인지능을 통한 사회성 훈련 및 관계 회복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가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10월25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직원모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계약직) 모집

분야: 사무직 1명, 노무직 3명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10월28일(금) 14시 서류까지 접수
 이메일(manoo@cckc.kr) 문의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요양보호사 /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서울대교구 성 앙베르 센터 직원 모집

분야: 별정직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업무: 조리업무 등 제반업무 가능한 분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문의: 02)2280-1784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t@seoul.catholic.kr) 접수

신정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대상: 신체 건강한 분 / 근무시간: (월) 휴무, 주 40시간
 업무: 방호, 미화, 시설관리(방화 및 가스안전면허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 및 방문(우 08027,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46길 28 신정동성당 사무실) 접수 / 문의: 02)2601-0103
 서류 전형 및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청량리성당 방호원 모집 / 문의: 02)966-6760, 1

인원: 1명(계약직) /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2484,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8길 14, 청량리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godlove@secat.kr) 접수
 업무: 시설관리, 방호, 미화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자격증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서류 합격자 개별 연락)

연희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323-4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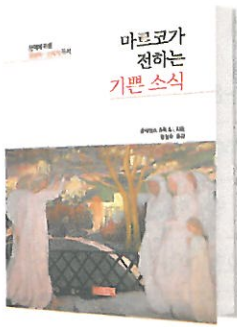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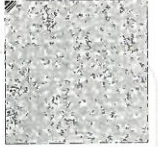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PC(엑셀 등) 사용이 가능하고 성실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연희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dongmi3011@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임사동) 시설관리장 모집

분야: 시설관리장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가능한 분(기체설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11월6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상소모임	III	곳	문의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시	수녀원(서울·강릉)	010-9460-8790(문자 문의) / cafe.daum.net/blueveil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0월23일(일) 9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문자 문의) / osh3@hanmail.net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교제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10월23일(일) 14시	가톨릭회관 526호(아프리카잡비아선교후원회)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마르코가 전하는
기쁜 소식

클레멘스 스톱 S.I. 지음
성서와함께 | 492쪽 | 3만원
문의: 02)822-0125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마르코 복음서의 현재 본문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자료 비평이나 양식 비평이 주목하는 원본문이나 배후의 자료 등, 현재 이전의 자료들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지금 본문에만 시선을 고정한다. 마르코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그 자체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으려는 시도다.



신간

365 성경통독

바오로딸 지음
바오로딸 | 160쪽 | 1만원
문의: 02)944-0944

성경통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세상에 하나뿐인 노트가 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1년 동안 성경을 통독 필사하며 마음에 남는 구절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성공적인 통독을 위한 7가지 루틴과 27가지 방법의 통독표를 제시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끈다.



신간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

양기석 지음
바오로딸 | 160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기후 위기에 직면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명쾌하게 핵심만 짚어준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초대에 동참하며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키워나가도록,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한다.



신간

수험생을 위한
54일 기도

원인숙 지음
예지(Wisdom) | 216쪽 | 1만3천원
문의: 031)900-8061

이 책은 원인숙 수녀가 그동안 인스타그램 '안녕! 예수님'을 통해 수험생과 부모를 위한 54일간의 기도로 소개한 것을 엮은 것이다. 이 책이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구절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의 기도로 심란한 수험생의 마음을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신간

삶의 모자이크

세르조 펠레그리니, 잔니 살레르노, 마리아 카포릴레 엮음 | 도서출판 백산로 | 232쪽 | 1만1천원
문의: 02)572-1943

2021년~2022년 가정의 해를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에 관한 전 세계 가정들의 경험담을 모은 책을 출간했다. 7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별로 『사랑의 기쁨』을 인용하여 해설, 소개말을 넣었으며 각 항목에 따른 경험담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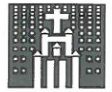
연극

스물두 번째 편지

공연 일시: 10월21일(금)~30일(주일) 오후 8시
공연 장소: 명동대성당 성모동산 앞 광장 상설 무대
문의: 02)3789-7702 피엠펙처스

조선 최초의 가톨릭 사제 김대건 신부의 꿈과 희망, 열정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신념과 도전, 사랑으로 채운 그의 불꽃같은 삶을 5명의 배우와 연주를 통해 극적으로 그려낸다. 무료 공연이며,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현장 입장도 가능)

제2250(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명국(비오로) 010-8733-651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견진성사 안내

견진성사 : 12월 3일(토) 오후 3시
 교리일정 : 11월 1일(화) ~ 11월 29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대상자 : 세례받은 만 12세 이상 및 교리강의에
 참석을 원하는 모든 신자
 신청기한 : 10월 23일(주일)까지
 강사 : 성바오로딸 교리교육팀 수녀님
 ※참고도서 :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 생활의 핵심'
 예절연습 : 11월 29일(화) 마지막 강의 후
 접수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 02.323.4450)
 ※ 청소년 견진교리는 중고등부 교리시간을 통해
 진행됩니다(시작일 10월 23일).

◎ 위령의 날 미사

11월 2일(수)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0시 (합동위령미사)

* 11월 2일은 위령의 날을 맞아 죽은 이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 후에 연도가 있습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10월 18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병자영성체 : 10월 21일(금) 10시 미사 후

◎ 초등부주일학교 성지순례

일시 : 10월 22일(토) / 구산성지
 문의 : 안토니오 교감 (010-5377-8909)
 ※ 10월 22일(토) 오후 3시 어린이미사는
 없습니다.

◎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성모마리아의 정신인 기도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정영희 안나 (010-5006-1158)
 차광옥 알렉산더 (010-6314-2198)
 김순교 안젤라 (010-2223-1345)

◎ 한푸름 청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30분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청년20예그리나전례단·30프리모전례단 모집

주님의 잔치에 함께 할 청년전례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청년20예그리나전례단장 (010-6339-6324)
 청년30프리모전례단장 (010-2550-2375)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0. 9)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7	860 (41.0%)	820 (39.1%)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71,295,300원

◎ 감사헌금 (10월 3일~9일)

익 명 일백만원 이계동 이십만원
 손은지 일십만원 정수진 칠만원
 이민호 이십만원 진경선 일십만원
 이창수 일십만원 고영은 이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박명숙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28주일)

교무금 10,045,000원
 주일헌금 4,395,5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1,582,000원

입당	4	봉헌	511, 217	성체	170, 163	파견	21
----	---	----	----------	----	----------	----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 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 이 시 다